



호텔의 맛
식탁으로
유통채널 다변화
L1

metro®

Life

비만치료 넘어
당뇨·심장까지
‘만능 대사약’
L2



계열사와 발맞추고, 고객과 함께 기부... 일상에 담은 ‘상생’



현대백화점그룹

서스틴베스트 ESG평가 6년 연속 ‘AA’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로드맵 세워

폐지·페비닐 재활용... 쇼핑백 등 제작
고객 직접 참여하는 환경보호 활동도

고객과 매칭 그랜트로 ‘기부 캠페인’
네팔 홍수피해 복구, 주거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 자립준비청년 후원
공정거래 ‘최우수’, 협력사와 동반성장

안전보건 국제표준 ‘ISO 45001’인증
ESG 경영위원회 중심 거버넌스 구축

현대백화점그룹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성과를 내며 ESG 경영 모범 기업으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구호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일상과 사업 역량에 맞닿은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라는 평가다.

◆ 외부 평가로 입증된 ESG 경영

현대백화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2026년 상반기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받았다. 2023년 하반기 이후 6회 연속이다. 올 상반기 평가 대상 1305개 기업 가운데 AA 등급은 11.7%에 불과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기업 중 종합 4위로 ‘ESG 베스트 기업 100’에 선정됐으며, 유통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한국ESG 기준(KCGS) 평가에서도 유통업계 유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통합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기후 대응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현대백화점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에 따르면 회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CDP 기후 변화 평가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A 등급을 획득했다. 2030년까지 Scope 1+2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2035년 32%, 2050년 58% 줄이는 로드맵도 세웠다.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Sc

ope 1+2)은 전년보다 3716tCO₂ eq 줄었다.

◆ 자원순환, 일상의 접점에서 시작

자원순환은 현대백화점 ESG의 핵심 축이다. 2022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폐지 재활용 시스템 ‘프로젝트 100’을 통해 지난 4년간 100% 재생지 쇼핑백 3200만장을 제작했다. 목재 약 8000톤을 아껴 나무 5만 3000그루를 보호한 효과다. 쇼핑백은 레드닷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상을 받았다.

2024년 6월부터는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개발한 ‘비닐 투 비닐’을 운영 중이다. 점포에서 나온 폐비닐을 열분해해 새 비닐봉투로 만들어 다시 점포에서 쓰는 모델로, 올해 상반기까지 폐비닐 224톤을 수거해 비닐봉투 약 30만장을 재생산했다. 현재 13개 점포에서 수거 체계를 가동하며, 향후 지방 점포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 현대그린푸드도 업계 최초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단체급식에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 30톤 규모를 공급하며 전국 급식장에서 월 1회 저탄소 돈육 메뉴를 선보인다.

고객이 환경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사단법인 생명숲, 서울시와 함께 운영하는 ‘서울마이트리’는 고객이 나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를 회사가 후원하는 매칭 방식이다. 지난해 도심 숲 조성 면적은 1만2636㎡에 달했고 706명이 기부에 참여했다. 서울숲에는 고객이 4㎡ 단위로 선택한 정원이 모여 800㎡ 규모의 ‘그린프렌즈 가든’이 만들어졌다. 일회용품 감축에도 힘써, 지난해 대화용기 유상판매와 용기 지참 건수를 환산한 일회용품 감축량이 약 49만 개로 집계됐다.

한섬은 2026 서울특별시 환경상 건물에너지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사옥 형광등을 고효율 LED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감에 힘써 2023~2024년 평균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9톤 줄였다.

◆ 고객과 함께 나눔, 계열사와 상생

고객 참여형 기부는 현대백화점의 차별점이다. 2022년부터 H포인트 앱을 상시 기부 플랫폼으로 운영하며, 재해 때마다 고객 기부액만큼 회사가 더하는 ‘매칭 그랜트’를 진행해



현대백화점 ‘친환경 쇼핑백’이 도입 4년간 나무 5만 3000그루를 살리는 효과를 내며,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왔다. 올해 네팔 홍수 피해 때는 고객 1만 4266명이 포인트 5000만점을 기부했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한 데 매장 행사 수익금을 합쳐 성금 3억원을 한국해비타트에 전달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도 고객 7000여 명이 동참해 후원금 2억원을 마련했다.

리빙·인테리어 계열사들은 본업을 살려 주거 복지에 나섰다. 현대리바트·현대L&C·지누스는 서울시, 한국해비타트와 총 2억원 규모의 ‘주거안심동행’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집 수리를 지원한다. 종로구 창신동 빈집을 고쳐 만든 ‘긴급주택’ 조성에도 가구와 전자제품을 보냈다. 현대L&C는 한국에너지재단과 손잡고 전국 180여 개 시공업체에 창호 시공 교육을 제공한다.

소상공인·미래세대 지원도 이어진다. 현대이지웰은 복지몰 입점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하고, 서대문구에 자립준비청년 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현대홈쇼핑은 뷰티 소상공인 육성 ‘TOPS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0여 명이 참가한 ‘친환경 어린이 그림대회’와 장애가정 대학·대학원생 장학금 지원도 이어갔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알트원(ALT.1)과 현대어린이책미술관등상설 문화공간을 운영해 한국 메세나협회의 ‘2025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에서 개별 기업 1위에 올랐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에 올랐고,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는 8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성과가 좋은 파트너사에는 매월 계약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공급망 전반의 기후 대응 참여를 유도한다.

◆ 안전과 신뢰 기반 다진다

올해 6월에는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본사를 포함한 전국 사업장이 대상이며, 고객·협력사·임직원 대상 안전인식 조사와 폭염·집중호우 대비 안전관리 계획이 높게 평가됐다. 2025년에는 정보보호 국제표준 ISO 27001도 취득해 디지털 전환 속 고객 안전망을 강화했다.

ESG 경영을 전담하는 ESG 추진협의체와 이사회 산하 ESG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도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단순한 친환경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고객과 생활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성 있는 ESG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지난 2일 서울 중구 해비타트 본사에서 진행된 네팔 수해 복구 성금 전달식에서 현대백화점 양명성 영업전략담당 상무(사진 왼쪽)와 마히자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진행된 ISO 45001 인증 수여식에서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오른쪽)이 문동민 한국표준협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문체부, AG 선수단 귀국 환영 행사 예정...“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에 감동”
▲“줄 당기는 시농만”...태극기 능장 게양, 日 현저서도 고의성 의혹
/사진 뉴스스

▲축구 대표팀, “군대 안 가요” 발언 사과...축구협회 “품행 관리 노력”
▲‘정수진 폭로’에 유도회 공식 입장 발표...“세계선수권 이후 조사할 것”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지자체에 총 61억 인센티브 확정
▲최휘영 “‘암살자(들)’ 평가는 관객 몫...창작자 위협은 민주주의 파괴”